

연예뉴스 HOT 3

‘알츠하이머 투병’ 윤정희 영면...향년 79세



故윤정희

고(故) 배우 윤정희가 30일(한국시간) 영면에 들었다. 이날 프랑스 파리 인근 한 성당에서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렀고, 고인의 유해는 뱅센 묘지에 안치했다. 이날 장례는 남편 피아니스트 백건우와 딸 바이올리니스트 백진희 등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됐다. 국내 거주 중인 일부 유족의 뜻에 따라 이날 오전 한국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성당에서는 70여 명의 신자가 자리 한 가운데 윤정희를 추모하기 위한 위령미사가 열렸다. 이 성당은 윤정희가 생전 한국에 올 때마다 방문했던 곳으로 위령미사는 다음달 1일까지 열린다. 윤정희는 알츠하이머 투병 중 20일 향년 79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BTS, 日 레코드협회 플래티넘 인증 획득

그들 방탄소년단(BTS)이 일본 레코드협회 플래티넘 인증을 받았다. 30일 일본 레코드협회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이 2018년 8월 발표한 ‘러브 유어셀프 걸 앤서’의 타이틀곡 ‘아이돌’이 누적재생수 1억 회를 넘겨 플래티넘 인증 작품에 올랐다. 일본 레코드협회는 곡 누적재생 횟수(스트리밍 부분)에 따라 실버(3000만 회 이상), 골드(5000만 회 이상), 플래티넘(1억 회 이상), 다이아몬드(5억 회 이상)로 구분해 매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인증 결과를 발표한다. 방탄소년단은 ‘유어 아이즈 텔’, ‘페이 크 러브’, ‘라이프 고스 온’, ‘필름 아웃’, ‘DNA’ 등 총 12곡으로 ‘플래티넘’ 인증을 획득했다. ‘다이너마이트’로는 ‘다이아몬드’ 인증 작품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전주국제영화제, 마스크 가급적 착용 권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면서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열리는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관람객의 건강을 위해 ‘가급적 착용’을 안내하는 등 정부 지침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방역 체계가 운영될 전망이다. 30일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티켓 예매가 이뤄지는 홈페이지에 이러한 내용의 안내문을 게시하고, 영화관 입구부터 상영관 앞까지의 동선에 안내문을 부착할 예정이다. 상영관 내 인원 조정이나 띄어 앉기 등도 고려하고 있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donga.com

※지면제작관계상 31일자 TV편성표는 실지 못했습니다.

휴먼코미디 영화 ‘카운트’ 2월 개봉 앞둔 진선규

“데뷔 19년만에 첫 단독 주연...운명 같은 작품”

‘오합지졸’ 고등학교 복싱부 이야기 배우 되기 전 꿈꿨던 체육교사 연기 20년전 공연 함께한 오나라와 재회 고향인 진해에서 촬영 감회 새로워

“늘 믿어주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이죠!” 배우 진선규(45)가 데뷔 19년 만에 첫 단독 주연을 맡으며 ‘흥행 배우’로도 우뚝 서게 됐다. 2월 개봉하는 영화 ‘카운트’(제작 필름케이)는 오합지졸 고등학교 복싱부의 이야기를 그린 휴먼코미디로 극중 그는 올림픽 복싱 챔피언 출신 체육교사 시헌 역을 맡았다. 그동안 영화 ‘범죄도시’, ‘극한직업’, ‘공조’ 등에서 강렬한 캐릭터를 선보이며 존재감을 과시했던 그는 이번에 첫 주연뿐만 아니라 연기 변신까지 시도한다.

●“단독 주연 부담감, 함께 나눠준 동료들” 진선규는 30일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제작보고회에서 ‘1번 주연’ 자리인 MC 박경림 바로 옆에 앉아 “(여러 제작보고회에 참석해왔지만) 경험 써 옆자리에 처음 앉아본다. 참 떨리는 자리다”며 말했다. 단독 주연작이니만큼 느끼는 책임감이나 부담감도 상당하다. 그는 “전체의 서사를 이끌어가는 인물로서 잘 해내야



배우 진선규가 30일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점에서 열린 영화 ‘카운트’ 제작보고회에서 ‘첫 주연 영화라 고민과 부담이 많았다’고 말했다. 주현희 기자 teth1147@donga.com

한다는 걱정이 크고, 많이 떨린다”면서 “그래도 좋은 동료 배우들이 부족한 저를 채워주셨기에 좋은 영화가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20년 전 함께 공연 무대에 섰던 오나라와 호흡을 맞추는 것에 대해 흥미를 느끼며 “누나가 캐스팅 됐다고 했을 때부터 너무 좋았다”며 밝게 웃었다. 오나라도 “선규 씨와 ‘우리 나중에 잘 돼서 꼭 같은 영화 하자’고 말했다”며 “(선규 씨를) 만나면 항상 기분이 좋다. 진선규는 잘 돼도 배 아프지 않고 늘 응원하고픈 배우”라고 애정을 드러냈다.

●권혁재 감독 “진선규와 만남은 운명” 진선규는 이번 영화가 마치 ‘운명’과도 같았다. 극중 체육교사 역은 배우가 되기 전부터 꿈꿨다. 또 촬영 배경인 진해는 그의 고향이다. “시나리오를 볼 때부터 마음을 완전히 빼앗겼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얼마 만에 진해에서 빛깔 구경을 했는지 몰라요. 빛깔이 그렇게나 예쁜지 40년 만에 깨달았다니까요. 하하하!” 각본을 쓰고 연출한 권혁재 감독도 진선규와 만남을 “운명”이라고 표현하며 “진해 배경에 사투리를 쓰는 주인공이 지 않냐. 선규 씨가 실제로 복싱도 좋아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 감독이 “조심스럽게 시나리오를 드렸는데 흔쾌히 수락해주셨다.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이승미 smlee@donga.com

드라마 스타작가 전쟁터 된 ‘섬과 시골’

임상춘 신작 ‘폭삭...’ 제주에서 촬영 아이유·박보검 입맛준 로맨스 화제 권혜주 작가 ‘웰컴투 삼달리’ 섬 배경 박혜련의 ‘무인도’ 박은빈 출연 검토

올해 안방극장에 돌아오는 ‘스타 작가’들이 일제히 섬과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한 신작을 잇달아 준비해 눈길을 끈다. ‘동백꽃 필 무렵’의 임상춘, ‘고백부부’의 권혜주, ‘너의 목소리가 들려’ 박혜련 등은

편편한 도시를 떠나 따뜻한 시골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춘다. 시청자들의 낭만과 동경을 자극하면서 다시 한번 시청률 흥행에 도전한다. 2019년 KBS 2TV ‘동백꽃 필 무렵’으로 바닷가 마을의 미혼모와 순경의 순애보를 그린 임상춘 작가는 새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로 1950년대 제주 한 마을의 소년과 소녀의 성장과 풋풋한 첫사랑을 담는다. 톱스타 아이유와 박보검이 각각 야무지고 당찬 애순과 성실하고 무뎠한 관식 역을 맡아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일찌감치 화

제를 모으고 있다. tvN ‘미생’, ‘나의 아저씨’ 등을 만든 김원석 PD와 손잡은 드라마는 상반기에 사전 제작한다. 권혜주 작가가 집필한 ‘웰컴투 삼달리’도 제주를 모티브 삼은 가상의 섬 마도를 배경으로 한다. 마도 출신의 여자가 고향으로 돌아와 첫사랑과 조우하는 내용이다. 갖은 풍량에도 웃음을 잃지 않는 그의 자매들과 이웃의 일상을 통해 섬마을의 특색을 곳곳에 살릴 예정이다. ‘동백꽃 필 무렵’을 연출한 차영훈 PD 등 제작진은 조만간 주·조연 캐스팅을 마치는 대로 촬영에 돌입한다. 배우 박은빈이 출연을 검토하고 있는 ‘무인도의 디바’는 박혜련 작가의 신작으로 15년간 무인도에 표류한 여자가 도시로

나와 가수에 도전하는 이야기다. 주인공의 무인도 생활이 초반과 회상 장면으로 그려지며 삶을 향한 희망과 의지를 그릴 예정이다. 이처럼 드라마 제작사들이 안방극장에서 사뭇 낮은 배경을 드라마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배경에는 스타 작가들의 팬덤에 기대는 동시에 최근 ‘착한 드라마’의 시청률 흥행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한 드라마 제작사 관계자는 “앞서 tvN ‘갯마을 차차차’, ENA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이 자극적인 전개 없이도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방송가에서 관련 소재가 일종의 차별화 전략으로 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30년 전통의 위병장의 위력!!

수년 동안 온갖 거 다 먹어봐도... 마음도, 몸도, 속도, 생각조차도 답답한... 어떤 음식이든 가리지도 겁내지도 말고 맛있게 배블리 다 드셔도 됩니다.



1. 위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스러우십니까?
2. 유명한 곳 다 찾아다녀도 별 차도가 없으십니까?
3. 드시고 싶으신 것을 위 때문에 못드시고 계십니까?

해답은 위병장이 빠르고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위병장으로 29년된 위장병을 고친 김장자님

순 식물성 원료에서 뽑아낸 성분들이 오랜 세월동안 날이 갈수록 마음도, 몸도, 먹는 것조차 답답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걱정을 하느라 마음고생까지 해오신 것을 하루라도 다함께 편안한 일상생활 찾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그렇게 꼭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마음도 몸도 고생 많이 해오셨습니다. 고객님의 실망도, 후회도, 거짓도 없는 제품력도 함께 꼭 지켜가겠습니다.

※ 위병장은 30년 전통의 장구한 세월동안 과학적인 방법도 함께 접목해 오면서 수많은 관찰과 실험에 의한 실증적 경험이 축적된 기술이 진화되어 만들어진 유건식품의 대표제품입니다.



상담 및 구입 문의 02-477-5605

벌떡궁! 남성(性)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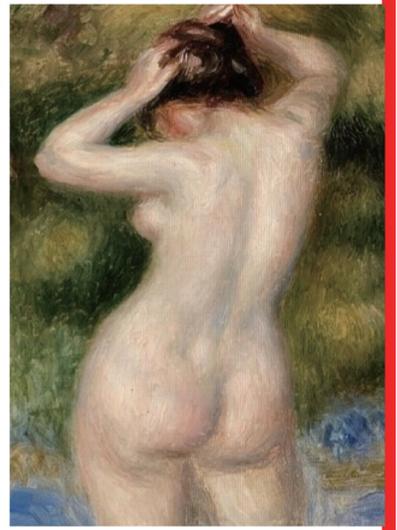
"살맛 나네, 살맛 나~"

고개속인 남성이 살아났네!

- 혈류장애로 시들하고 자신없는분
- 중간에 시들거나 빠른분 30분 지속
- 고령이나 발기불능인분도 30분 지속
- 음경이 왜소한분 확대되어 커짐

40대부터 70~80대까지 효과만점

- 완전자동, 온열로 혈류개선 배가됨
- ★ 국내 단 하나! 효과 탁월!!
- ★ 타제품 써보신분 우대함
- ★ 5초 이내 작동, 휴대 간편



※대리점 모집 타제품 보상판매 구입문의 1522-3383